

데이터관리 및 추적검사- 데이터관리 전국 위암 환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중간결과

대한위암학회 정보전산위원회 서울의대의과

양 한 광

목적 및 방법

대한위암학회 산하 정보전산위원회에서는 현재 각 국내 병원에서의 위암 환자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대한위암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10월 9일 대한위암학회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총 107개 병원에 e-mail과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상 모든 분석은 각 의료기관(다수의 부속병원이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 각 부속병원을 따로 분석) 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과 함께 각 기관의 위암 sheet(또는 퇴원요약지)와 병리결과보고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다.

결 과

1. 회신율

1차로 2003년 10월 17일까지 회신된 설문을 분석하였다. 총 107개 병원 중 37개 병원에서 회신하여 총 회신율은 34.6%이었다. 기관의 종류 별로는 대학병원이 53.6% (30/56), 종합병원이 13.7% (7/51)이었다. 설문 조사에 회신한 병원들을 분석했을 때, 국내에서 위암 진료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Table 1. 회신기관 명단).

2. 회신 기관의 특성

대학병원이 30개(81.1%), 종합병원이 7개(18.9%)이었으며, 병상 수 별로는 500병상 이하가 6개(16.2%), 1000병상 이하가 27개(73.0%), 1001병상 이상이 4개(10.8%)이었다. 연간 위암 수술 수는 50예 이하가 3개(8.1%), 100예 이하가 8개(21.6%), 200예 이하가 9개(24.3%), 2001예 이상이 17개(45.9%)이었다.

3. 위암 환자의 데이터 관리

위암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conference를 시행 여부에 관한 질문에 19개 병원(51.4%)이 시행한다고 응답하였고, 위암 환자의 임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지 여부에 질문에 30개 병원(81.1%)이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파일명은 MS excel이 15예(46.9%), MS access가 11예(34.4%), SPSS와 Fox-Pro가 각각 3예(9.4%)였다.

위암 환자에만 사용되는 일정한 형식의 sheet 또는 퇴원요약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24

개 병원(64.9%)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치료를 시행한 위암 환자의 추적 관찰 데이터를 얻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14개 병원(37.8%)이 일정 기간마다 추적 결과를 조사한다고 응답하였고, 16개 병원(43.2%)이 각종 임상연구 시행 시 조사한다고 응답하였다. 외래 진료 시 입력한다는 응답이 3예(8.1%)있었고 병원 내의 추적조사팀이 조사한다는 응답도 1예(2.7%)있었다. 추적 관찰 데이터를 얻는 방법을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진료기록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4예(91.9%),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한다는 응답이 28예(75.7%),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8예(48.6%)였으며, 3예(8.1%)에서는 경찰청 자료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정한 형식의 위암 병리결과보고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32개 병원(86.5%)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병원 전산화

Order Communicating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ordering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37개 전 병원이 현재 사용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Electric Medical Record (컴퓨터를 이용한 charting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10개 병원(27.0%)이 현재 사용 중, 4개 병원(10.8%)이 설치 중, 13개 병원(35.1%)이 사용 예정 중, 10개 병원(27.0%)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ng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파일 보관/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26개 병원(70.3%)가 현재 사용 중, 5개 병원(13.5%)이 설치 중, 4개 병원(10.8%)이 사용 예정 중, 2개 병원(5.4%)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회신기관 명단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 가톨릭의과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용산병원
부산 메리놀병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분당 제생병원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마산삼성병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Japanese Gastric Cancer Association
세란병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SA

(가나다 순, 초록 접수 관계로 10월 17일까지 회신된 기관만 포함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암 Sheet와 병리결과보고서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과 일본위암학회의 위암 sheet를 포함하여 총 19개 병원이 위암 환자 sheet 또는 퇴원요약지를 보내주었다. 또한 총 23개 병원이 위암 병리결과보고서를 보내주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위암학회의 Database Committee의 주도하에 1999년부터 통일된 위암 sheet를 전국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